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 FoMo

Forced Mobilization

2022년 3월호

Vol.2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 FoMo

Forced Mobilization

## 이슈

0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성명서

04 사도(佐渡)? 사도(死島)!

06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논란

## 소장 유물 소개

07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이기상의 국민노무수첩

## 재단 소식

09 '기억의 터' 위패봉안 신청 공고

## 역사관 소식

08 어린이 교양서 아동극본집  
남양의 사탕수수밭 아이들

## 탐방기

12 포모의 투어일지  
일제강점기 부산 대청동 투어①

## 유관기관 소개

14 재단과 함께 한 청소년 동아리 소개

## 역사관 방문기

16 인스타그램 속 역사관

## 웹툰 공모전 수상작

18 '우리는 방사능받이였는가'

## 애독자란

21 가로세로 낱말풀이

## 역사관 사용설명서

22 어린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안내

23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 역사를 기억하는 모두가 꿈꾸는 바람을 나누다 「로즈마리」 편 (꽃말: 기억)

유리병에 고이 접혀 담긴 쪽지들을 꺼내 편지를 부치러 가는 포모의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할 역사를 알리고, 기억을 전하고, 바람을 나누는 역사관의 역할을 표현.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서도 안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1년 5월 15일 통권 제24호 |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강창석, 김성곤,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배연우,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추경아, 오다슬 | **디자인** 성준문화 |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 성명서

##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입장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반대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회의석상에서 유네스코 측의 권고에 따라 당시 일본 정부의 대표인 유네스코 대사 발언을 통해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와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반하는 자료를 도쿄 소재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전시하고 있어 유네스코 측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덧붙여 2021년 7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2015년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사실이 있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 신청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모순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와 피해 당사 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둘째, 일본은 사도광산을 센코쿠 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금 채굴 유산으로만 한정하여 신청하지만 외관은 물론 내부에서 채굴 장소에

이르는 길은 모두 다 근대 이후의 시설일 뿐 아니라 그 길은 태평양전쟁 중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구리 등을 채굴하기 위해 닦아놓은 길이다. 이것은 바로 조선인 강제노동의 결과이며, 그 증거는 지난 2022년 1월 27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한 「일본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왜곡」 학술 세미나에서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금산’에 이르는 길을 생략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언급 없이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셋째, 세계유산은 빛나는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보편성과 양심’에 기초한 것이라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의 역사를 기술할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국가들이 수긍하지 않는 한 ‘조각난 일부의 역사와 진실이 가려진 탁월성’만을 담은 등재 신청이라면 결코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가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일본 내의 정파적 판단에 따라 등록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진정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편성을 지향하는 유네스코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근거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대하며,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사도(佐渡)? 사도(死島)!

고통의 금광, 사도광산

855km<sup>2</sup> 크기의 사도섬은 일본 중세시기부터 악명높은 귀양지이자 광산으로 널리 알려졌다. 16세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곳에서 상납받은 은으로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하고 조선 정벌을 위한 임진왜란 군자금에 활용하였다. 1601년 금맥이 발견되면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도섬을 직할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때 사도섬은 일종의 막부 은행이자 화폐공장으로 이용되었다. 이후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유화되었다가 1896년부터는 미쓰비시 합자회사가 사도광산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도의 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침략하기 위한 군자금으로, 구리와 같은 광물은 전쟁 물자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다.

## 1.2 사도광산 전경과 갱도 내부

3. 사도뱅크 :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반대하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뱅크'의 활동(출처 사이버외교사절단 뱅크)



03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까지 역사왜곡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키려는 일본정부 막는 글로벌 캠페인 착수!**

뱅크 2021. 12. 16. 12:54 URL 복사 +이웃추가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합니다**

일본이 세계유산 제도를 이용하여 강제노역 과거를 세탁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www.bridgeasia.net

**We are against Japan's registration of Sado Mine as a UNESCO World Heritage.**

Prevent Japan from whitewashing forced labor of the past by exploiting the UNESCO World Heritage System!



www.bridgeasia.net

▶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신태철, 윤재옥의 사진



피해자 신태철(신태철 기증)



피해자 윤재옥(윤석운 기증)

사도섬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노역했던 곳이다. 사도섬에는 28개소의 광산이 있는데, 조선인의 강제동원이 문제가 되는 곳은 아이카와 지역의 광산이다. 조선인의 강제동원은 1939년 2월부터 할당모집의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사도광업소 기록에 의하면 1940년 2월부터 1942년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총 1,005명의 조선인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1949년 니가타 노동기준국이 작성한 자료에는 조선인 1,140명의 미불 임금을 공탁한 기록이 있어 당시 최소 1,140명의 조선인이 사도광산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본은 이 아픈 역사를 지우고 오직 에도시대의 최대 금광만을 남겨 세계유산에 등재하려 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혜경·허광무, 『탐욕의 땅, 미쓰비시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 도서출판 선인, 2022.

글 | 역사관 김민균

# 일본 정부의 세계유산 등재 논란

세계유산 등재의 이면에는 강요된 죽음의 노동이



사도광산 (출처:뉴스타운)

지난 2020년 3월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이후 일본 정부가 또다시 우리를 실망시켰다. 이번에는 사도광산(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 소재)이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을 센코쿠 시대(15세기 중반~16세기 말)부터 에도시대(1603~1867)까지 금 채굴 유산으로만 한정하여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외관과 채굴 장소에 이르는 길은 모두 근대 이후 시설이다. 특히 채굴 장소에 이르는 길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군수 물자를 채굴하기 위해 닦아 놓은 것으로, 조선인 강제노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하시마(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長崎)시 소재, 일명 군함도라고 부름)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 목록으로 등재됐다. 당시 등재에는 위원회의 '각 시설의 전체 역

일본 사도(佐渡)섬의 대표적인 금은 광산인 아이카와킨  
간잔(相川金銀山)의 시설물 유적 (출처: 연합뉴스)



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준비하라'는 권고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조치 방안으로 산업유산정보센터(일본 도쿄(東京)도 신주쿠(新宿)구 소재)를 건립하게 됐다. 하지만 당초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건립 취지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에서 '산업유산 보존과 인식 제고를 위한 싱크탱크'로 바뀐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추진된 바 있다. 더불어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강제동원 된 조선인과 관련해 학대와 차별이 없었다'는 인터뷰 등 왜곡된 전시물이 설치되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며, 빛나는 것이나 어두운 것이나 보편성과 양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등재에 급급하여 전체 역사를 가리고 역사와 장소성의 부조화에 기댄다면, 더욱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국제적인 약속마저 이행을 거부한다면 등재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전체의 역사를 기술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등재가 되길 바란다.

글 | 역사관 장민성

###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 이기상의 국민노무수첩

국민노무수첩은 국민노무수첩법(법률 제48호, 1941.3.7. 공포, 7.21. 시행)에 의해 시행된 제도로 노무의 적정한 배치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인력 통제법이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수첩제도를 적용해 노동자의 취업과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이동방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임금통제, 기타 노무통제, 노동자연금보험제도 실시는 물론이고, 노동자의 신분경력기능정도 등에 관한 국가적 증명제도로서 노무 관리에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국민노무수첩은 정부가 발행하는데, 종업자가 되려는 자가 취업지에서 신청을 하면 국민직업지도소장이 발급하게 되어있다. (시행규칙 제1조) 수첩에는 이름, 연령, 본적지, 거주지, 병역관계, 직업, 학력, 취업 장소, 기능정도, 임금, 급여 등 인적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 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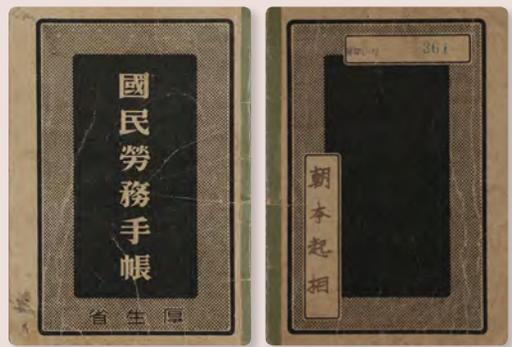
은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자신의 수첩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구해서 열람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 이기상(1871년생, 본적 충청남도 청양)의 국민노무수첩은 사도군 소재 룡쓰(兩津)국민직업지도소장이 1942년 4월 18일에 교부한 것으로 적혀있다. 취업 장소란(欄)을 보면 취업 장소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사용자(광업대리인) 이름 아래 날인이 되어있다. 이기상은 니가타 현 사도 군 아이카와 소재 미쓰비시 광업 주식회사 사도광업소에서 1942년 3월 17일부터 1944년 3월 30일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은 갱내 광석을 운반하고 쌓는 작업을 하는 운광부와 광석을 채굴하는 채광부(기능정도 2급)였다. 당시 급료는 일당 1원 90전씩 받다가 해용될 무렵에 3원 70전씩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 ▶ 국민노무수첩 내지

이름, 본적지, 거주지, 병역관계, 직업, 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 국민노무수첩 표지

뒷면에 소지자의 창씨명(朝本起相)이 적혀있다.

글 | 역사관 반선영

# 기억의 터

## 위패봉안 신청 공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내 위패관인 '기억의 터'를 조성하였고 위패 봉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행방불명 중 연고가 있는 경우, 유족 신청·접수를 받아 위패를 안치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2022년 위패 추가 제작 사업에 대한 안내 >

1. 신청대상 :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및 행방불명 중 연고가 있는 유족, 유족회장 등
2. 신청기한 : '22. 2월 이후 상시 접수
3. 신청서류
  - 가. 2022년도 위패제작 신청서 1부(붙임양식)
  - 나.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양식)
  - 다. 역사관 기억의터 위패 이전 안치 동의서 1부(망향의동산 안치 경우)
  -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위 안치 경우)
  - 마. 대일항쟁기위원회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1부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발송, FAX, 전화 접수 가능  
※ 보내실 곳 |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603호(수송동, 이마빌딩) 위패봉안사업 담당자 앞
5. 봉안안내 : 개별 유선 안내
6. 기타문의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획홍보국 서인원(T.02-721-1819, F.02-721-1882)
7. 주의사항 :
  - 일정 및 사업내용은 예산 및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봉안 대상은 '위로금등 지급결정서'상의 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결정
  - 희생자 위패 추가 제작시, 배우자 위패 제작 희생할 경우 신청 가능
  - 예산편성에 의한 순차적, 우선순위에 따라 위패 제작할 계획임

## 어린이 교양서 아동극본집 남양의 사탕수수밭 아이들



학술총서와 도록 발간에 주력해 온 역사관이 첫 어린이 교양서를 발간했다. 미래 세대들의 강제동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관의 문턱을 낮춰보고자 한 것이다. 이번 어린이 교양서는 독자층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직접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극본집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내용은 역사관 소개로 시작하여, 강제동원 유형별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귀여운 마스코트 포모가 등장하여 독자층의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관 소장 유물을 함께 소개하는 등 이야기의 생동감을 더하였다.

목차	내용
머리말	강제동원 배경 설명 및 역사 인식 필요성 안내
여기가 어디일까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소개
바다 저 너머로 끌려간 소녀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성주 자매의 이야기
운동장으로 모이시오	징병으로 끌려간 상기와 가족의 이야기
단발머리 소녀와 나비 할머니	위안부로 동원된 복순이와 소녀상 이야기
남양의 사탕수수밭 아이들	남양군도의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는 봉순이네 이야기
쌀을 다 내놓으라니!	공출의 배경과 공출로 인한 피해 등에 관한 내용
사할린으로 날아간 포모	사할린으로 징용된 할아버지와 포모의 대화

『남양의 사탕수수밭 아이들』은 서점에서 판매하지 않아요.  
대신 역사관 4층 로비, 7층 다독다독, 역사관 홈페이지 자료실, 전국 공공도서관,  
부산시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어요!

글 | 역사관 반선영

## 안덕자 작가와의 인터뷰

### Q 안녕하세요. 작가님! 우선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일제강점기 중 강제동원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남양의 사탕수수밭 아이들』을 쓴 안덕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동·청소년문학과 인연을 맺고 글을 쓴 지가 올해로 20년이 되네요. 그동안에 쓴 책들도 모두 의미가 있는 책이었지만 이번에도 뜻깊은 책을 내게 되어 역사관에 감사드립니다.

### Q 역사관 어린이 교양서 발간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어린이들이 석기나 청동기시대, 삼국시대, 고려와 조선시대 등의 역사는 책도 보고 박물관 견학과 현장답사까지 가며 공부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바로 앞 세대가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고통을 겪은 역사물들이 전시된 역사관에 와서 학습이나 관람을 하는 어린이는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관람하러 오는 어린이 중에서 전시물을 보고 무서워하는 어린이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조금이라도 쉽게,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 주고 싶었어요. 동극으로 쓴 이유는 글로도 읽고, 인형극이나 동극 또는 그림자극 같은 것으로 만들어 공연도 하면 어린이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책을 본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도 어렵게 느껴진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쉽게 이해가 된다면 좋아하시네요.

### Q 각 작품마다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나요?

A 모두 7편 중 한 편은 역사관을 알리는 내용이고요. 다른 6편의 작품은 각각 다른 유형으로 강제동원 되어 희생됐던 실존 인물들이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그동안 일제강제동원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일제의 강제동원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사료와 검증을 거쳐 기록한 책에는 많은 실존 인물과 사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

어 창작을 한거죠. 공부할 때보다 글을 쓸 때가 우리 선조들의 힘겨웠던 삶에 더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강제동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애처로웠습니다. 아마도 일제강제동원 시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강제동원의 여러 유형들을 속속들이 몰랐을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소재로 삼아 7편의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 Q 특히 애정이 가는 작품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봐도 이젠 재밌다! 하는 극본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A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단발머리 소녀와 나비 할머니>는 작품 첫 구상 때부터 고민이 많은 작품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가 고통을 겪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다루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충격일까? 위안부 문제를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위안부 문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책을 보고 난 뒤 마음을 먹고 썼습니다. 강제동원에 일본군 '위안부'가 빠지면 안 되죠. 어떻게 들려줄까 고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동문학의 최대 강점인 판타지적 요소를 넣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 눈여겨볼 장면은 버를 숨겨 뒀다 잡힐 위기에 처한 이야기에서 조수가 모른 척하고 넘겨준 장면과 조상께 제사 지내려고 숨겨둔 그 버를 아픈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은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대목이죠.

### Q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 책을 읽는 어린 독자들은 조금이나마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역사관에 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는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읽어보시고 자녀들의 역사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 역사관 반선영

포모의 투어일지

# 일제강점기 부산 대청동 투어 ①

오늘은 내가 대청동 투어 가이드! 여행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 알려줄 점이 있어.  
 이번 여행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일제강점기 대청동의 과거 흔적들을 살펴볼거야!  
 부산 대청동은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거든!  
 그럼, 출발~



## 01

일제강점기 부산의 날씨를 측정했던 ‘부산축후소’라는 곳이야!  
 원래는 보수동에 임시로 있었는데, 노후화와 도시 개발로 기상관측이 어려워지자  
 조선총독부는 1934년 이곳 대청동으로 부산축후소를 이전하였어.  
 현재 등래에 있는 부산지방기상청이 이곳에 있다 이사한 거래!  
 최근 연구에서 1934년 당시 총 8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음이 밝혀졌어.  
 하지만 현재는 1개 건물만이 남아있지.  
 부산축후소 건립은 러일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날씨를 조사하던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전쟁을 위한 기상관측이라니...  
 지금과는 목적이 많이 다른 것 같지?



**부산축후소**  
 (출처: 대한민국 기상청 블로그)



**부산기상관측소**  
 (출처: VISIT BUSAN)



02



평범한 주택같지만 담쟁이로 둘러싸인 이 일대는  
 과거 '향양원(向陽園)'이라는 곳이야.  
 대마도 출신 후쿠다 소베(福田増兵衛)가 양조장 사업으로  
 부자가 된 뒤 만든 별장이래. 이토 히로부미가 부산에 오면 묵었던 곳이라고도  
 알려져 있어. 이토 히로부미가 후쿠다 양조장에서 만든 청주에  
 '코요(향양, 向陽)'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거기서 향양원이 유래되었다고 해.  
 1920년 후쿠다가 죽고 나서 향양원일대인 대청동4가를  
 후쿠다마치라고 불렀을 만큼, 당시 후쿠다 가문은 대청동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 또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경부선 철도를 건설하는 데도 참여했다고 하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던 것 같아.

03



부산헌병대  
(출처: 부산역사문화대전)



이번에는 악명높던 '부산헌병대'가 있었던 곳을 소개할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이곳에 끌려와 구금과 고문을 당하셨지.  
 곤봉·죽도 등으로 구타한 것은 물론이고,  
 2~3일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않았대. 심지어는 뜨거운 화로를  
 머리 위에 들고 있게도 했대.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무고한 부산시민들까지 고문했다고 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이 길을 지나가며 조국을 위해 몸 바쳐  
 희생하셨던 독립운동가분들과 무고하게 죽은 부산 시민들을  
 한 번쯤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

부산 중구는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야.  
 그중에서도 대청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가장 변화한 지역이었어!  
 5월호에도 대청동 투어 2탄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포포가 알려주고 싶은 곳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따구 :)

<참고 자료>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상도민일보, 교수신문, 부산시보, 우리역사넷  
 김기수 외, 「釜山測候所の 건축적 특성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 재단과 함께 한 청소년 동아리 소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동원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미래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재단과 함께 강제동원을 알리고 기리는 활동을 펼쳤던 중·고등학교 동아리 4곳을 소개한다.



### 여수 한영고 (한사당)

YOU KNOW? How terrible OUR History is! 라는 활동명 아래 우리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 ① 체험부스 오픈을 통한 역사 게임 놀이 활동
- 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남기는 '따뜻한 말 한마디' 체험
- ③ 강제동원에 대해 서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토론회 진행
- ④ 강제동원, 더 오래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영상 제작



### 문산 수억고 (민족얼지킴이)

일제강점기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앞장서 우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 ① 역사 및 평화를 위한 캠페인 진행
- ② 3·1운동 행주나루터 선상만세시위 역사 다큐멘터리 출연



## 울산 경의고 (역사팩트체크)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매체에 나타난 역사를 알아보고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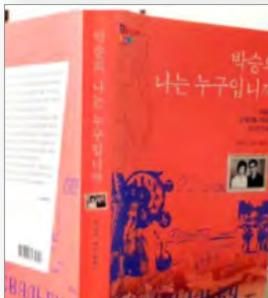
- ① 강제동원 이해를 위한 그림일기 쓰기
- ② 전교생을 대상으로 홍보물(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③ 영화 속 일제강제동원의 예시 살펴보기



## 파주 광탄중 (4H)

머리(Head), 마음(Heart), 손(Hands), 건강(Health)에서 착안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농촌에 애착을 가지며 민주시민으로 자신을 배양한다는 이념 하에서 활동했다.

- ① 파주의 강제동원관련 피해사례 연구
- ② Fomo 파주, Fomo 4H의 슬로건을 내세워 활동
- ③ 군함도를 포함한 영상 시청을 통한, 사건 알아보기 및 감상평 나누기
- ④ 강제동원 핵심 키워드 해시태그 작성
- ⑤ 강제동원관련 기사 요약하며 핵심 내용 파악하기
  - 보건소 버스에서 뛰어내린 3명의 청년(위안부 입소 거부)
  - 사할린 강제징용자 영주귀국
  - 홋카이도 강제징용 유해 안치 확인 등
- ⑥ 강제동원 관련 다양한 홍보 활동
  - 일제강제동원 관련 영화 상영, 기념품 제작, 버튼 배지 만들기 등



※ 세부 활동 내용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 속 역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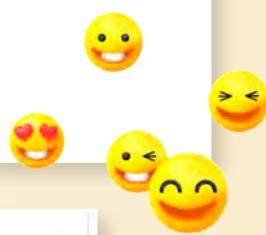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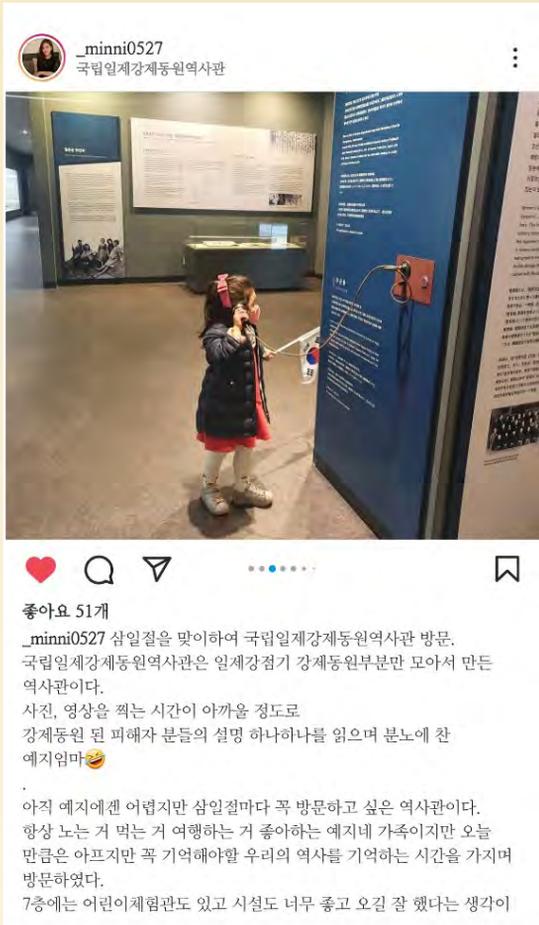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방문하고 남겨주신 후기를 소개합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스타그램 계정 @fomo.museum을 팔로우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관을 방문하신 뒤 후기와 함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태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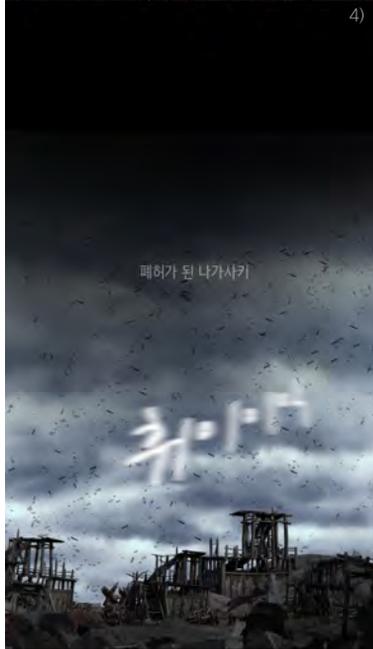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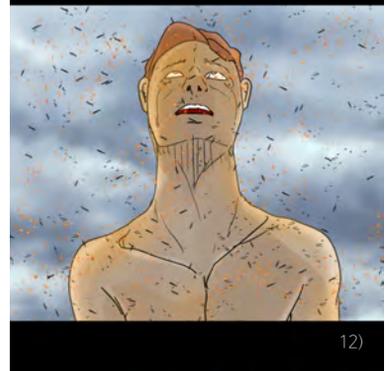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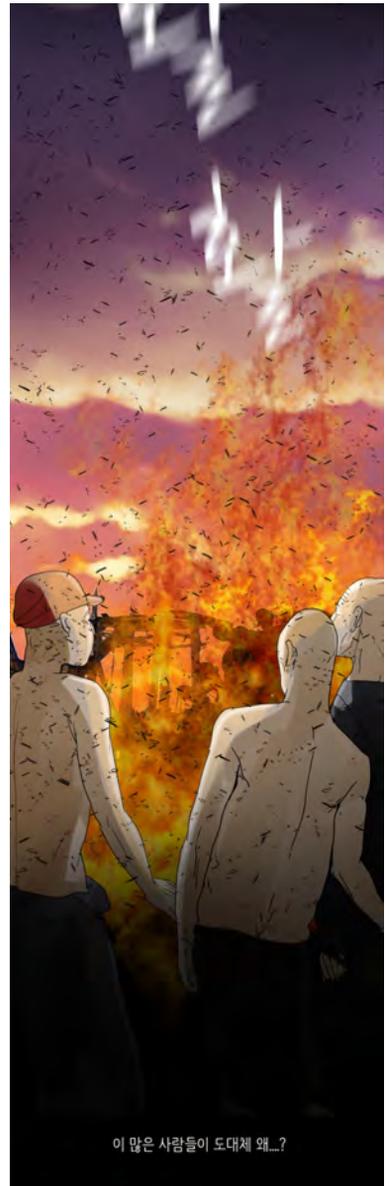
\*river\_jin22, arongstar\_history, \_minni0527, mery\_market, jung6666님의 자료 이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및 배포를 금합니다.

# ‘우리는 방사능받이였는가’

## 우리는 방사능받이였는가..



2021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아버지... 우리 간다...  
어버버버

13)



아버지!!  
우린 간다고!!

어어?  
그...그래...

가보겠습니다  
장인어른

헤헤헤헤

어버버버

그래 잘들 들어가  
돈 못 구해워서 미안하네...

14)



나는 몰랐다.

그것이 원자폭탄이었는데...  
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데...  
아무도 알려주질 않았다...



16)

나는 징용으로

내 자식들에게

가난과 피폭의 상처를 물려주었다.

일제는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나가사키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징용자들을 강제 동원하여 그중 많은 이가 피폭되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사죄를 하지 않는다.



일본정재동원피해지원재단





## 어린이·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안내



역사관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역사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 교육기관을 위해 작년과 같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역사관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신청서 발송 후 교재를 우편으로 수령해 유튜브 영상강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역사관에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인 모바일 체험활동지와 역사관 미리보기도 작년과 같이 운영됩니다.

(문의 : 051-629-8633)

### 교육 프로그램 소개



- ① **모바일 체험활동지** : 역사관 상설전시실에서 자율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역사관 안내데스크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체험이 가능합니다. 난이도별 3단계(초·중·고급)로 제작되었습니다.
- ② **역사관 미리보기** : 역사관에서 제작한 교재를 내려 받아 학습한 후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람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관 방문 전에 선행학습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 ③ **내 책상 위의 소녀상(온라인)** :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는 영상강의 프로그램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탄생배경과 문제점 등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수업 말미에 평화의 소녀상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종이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어봄으로써 일본군 '위안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의는 유튜브 녹화영상으로 진행됩니다.
- ④ **다시 쓰는 방구 아저씨(온라인)** : 방구 아저씨라는 동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으로 방구아저씨 낭독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시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방구 아저씨 팝업북을 제작해보며 강제동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 역사관을 소개합니다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 · 관람시간 : 09:30 ~17:30 (최종입장 17:00)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울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 인형극

강제동원 4가지 유형 소개와 보편적 인권적 의미 전달

- 7층 어린이체험관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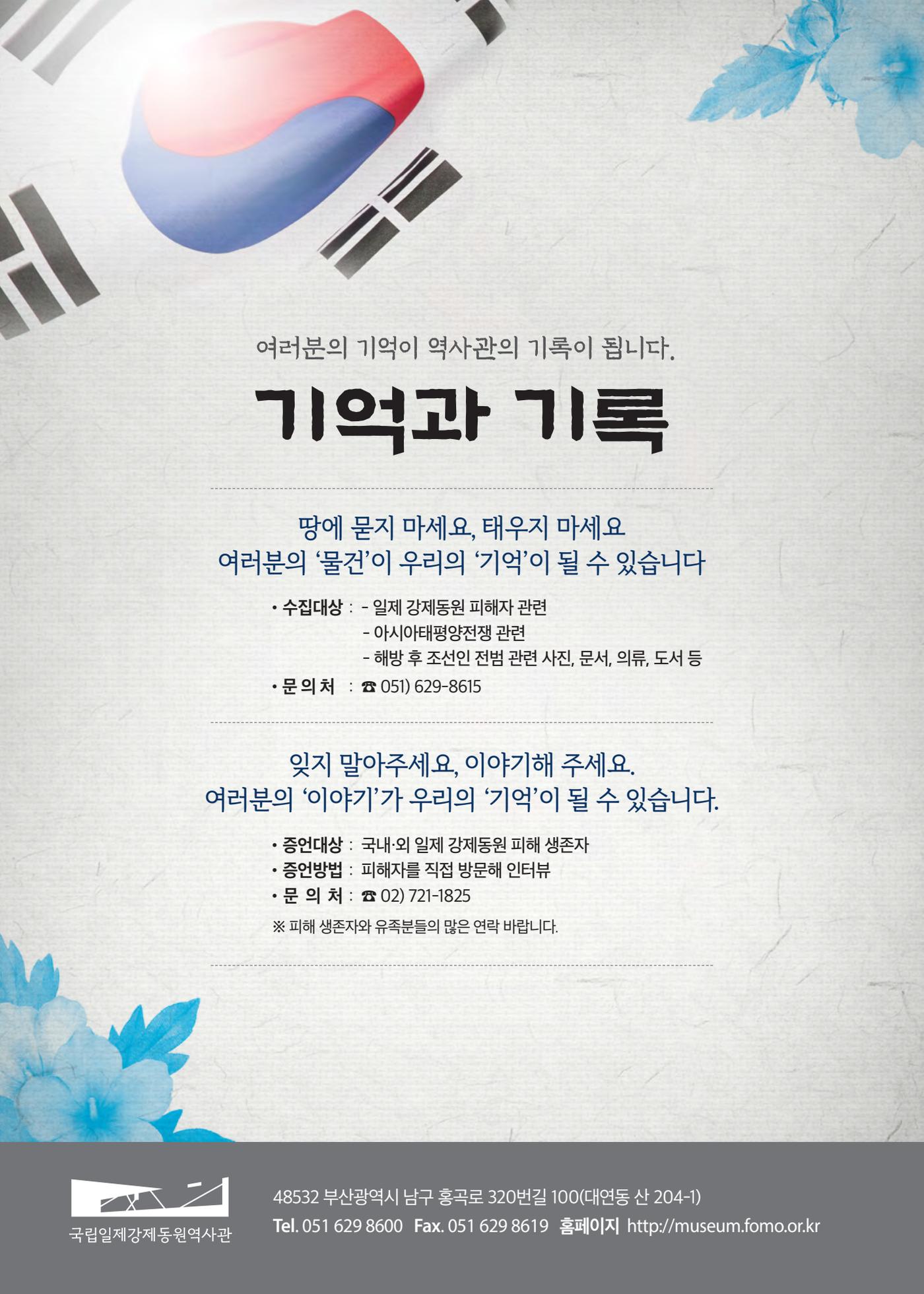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 이메일([museum@fomo.or.kr](mailto:museum@fomo.or.kr)),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기부 팔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 기억과 기록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사진, 문서, 의류, 도서 등
- 문의처 : ☎ 051) 629-8615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
  - 문의처 : ☎ 02) 721-1825
- ※ 피해 생존자와 유족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